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발등의 불”

현대연구원, OECD 평균증가율 6배 ... 제조·수송부문 감축 절실

국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증가율은 199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28일 <국내 이산화탄소 과배출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 환경부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1990-2005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국내에서는 98% 급증해 OECD 평균 증가율(16%)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20%, 일본은 15% 각각 늘었고 독일은 16% 줄었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 4억4900만톤(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현대연구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원인으로 낮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과 제조기업의 과다한 배출 등을 꼽았다.

현대연구원 관계자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제조기업과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30>